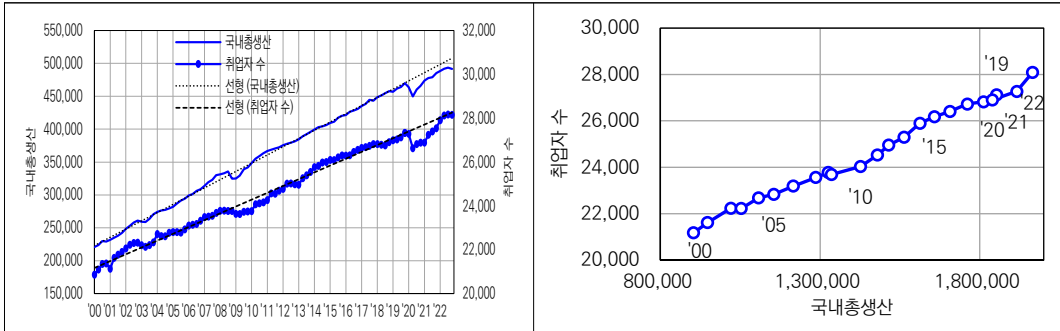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국내총생산과 고용의 변화

- 코로나19는 경제와 고용에 큰 충격을 주었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되고 있지만 2022년 고용과 국내총생산(실질) 변화는 서로 상이하였음.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업종별로 생산과 고용 간 관계를 살펴봄.
 - 업종별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경제활동별 GDP(실질) 자료를 사용하였고,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함.
- [그림 1]은 2000~2022년 기간 전체 국내총생산(실질)과 취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냄.
 - (그림 1 왼쪽) 코로나19 이전 국내총생산은 금융위기 전후를 제외하면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해옴. 최근 나타난 변화를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고 2021~2022년에는 회복되고 있음. 하지만 아직 2000~2019년 추세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반면 고용은 2021년 회복이 시작된 후 2022년에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0~2019년 추세까지 도달함.
 - (그림 1 오른쪽) 이를 산점도를 통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은 고용 회복이 생산 회복에 비해 완만했던 반면 2022년은 반대로 생산보다 고용의 회복이 더 두드러짐.

[그림 1] 국내총생산 및 취업자 수 추이: 선형(좌: 분기별, 계절조정) 및 산점도(우: 연도별, 원계열)

(단위: 십억 원,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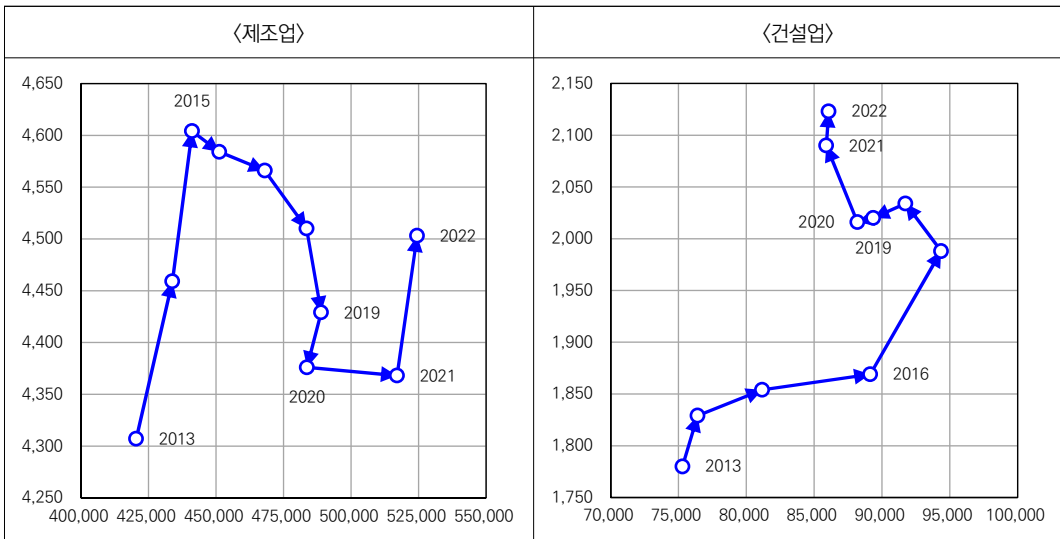


주: 2020년 1분기~2022년 4분기 추세선은 2000년 1분기~2019년 4분기까지의 선형 추세를 확장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 각 연도.

- 업종별 최근 추이를 보면 비서비스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의 관계가 확연히 다름.
 - [그림 2]에서 제조업(왼쪽)을 보면 2014~2015년은 생산 증가에 비해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남. 하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내총생산은 증가하고 고용은 감소하였음. 2020년은 코로나19로 생산과 고용이 동반 감소하였지만, 2021년 제조업 고용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음. 반면 2022년은 생산 증가에 비해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두 지표 간 관계가 변화됨.
 - 건설업은 2014~2016년에 생산 증가에 비해 고용이 정체되다 2017년 생산과 고용이 일시적으로 동반 증가함. 이후 생산과 고용의 관계가 변화하여 생산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도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이 강화됨.

[그림 2] 업종별 국내총생산 및 취업자 수 산점도: 제조업 및 건설업

(단위: 십억 원(가로축), 천 명(세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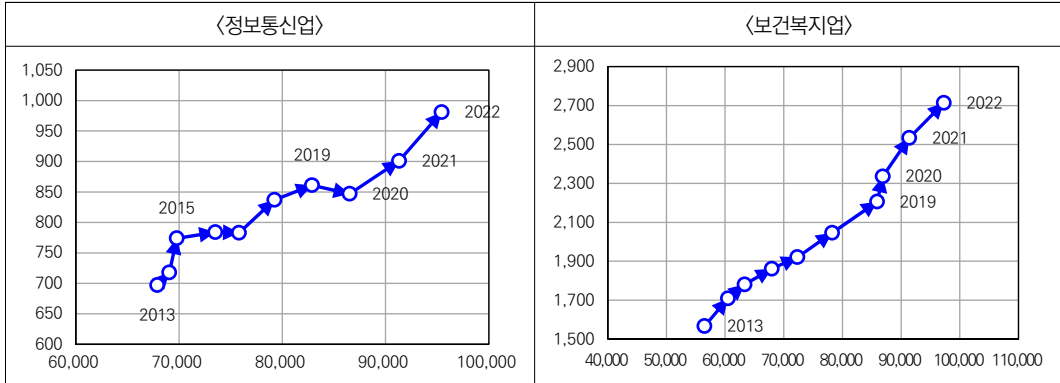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 각 연도.

-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은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업종임(그림 3 참조).
 - 정보통신업(왼쪽) 고용은 2015년과 2018년 간헐적으로 증가한 반면 생산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계단식으로 성장함. 2021~2022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산과 고용이 큰 폭으로 동반 성장한 것이 특징임.
 - 보건복지업(오른쪽)은 고령화 및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는 업종으로, 2013~2018년까지 생산의 성장과 고용의 증가가 꾸준히 나타남. 특히 2019년까지 비교적 일정하게 증가하던 고용은 코로나19로 생산 증가에 비해 고용이 더 크게 늘어남.

[그림 3] 업종별 국내총생산 및 취업자 수 산점도 : 정보통신업 및 보건복지업

(단위 : 십억 원(가로축), 천 명(세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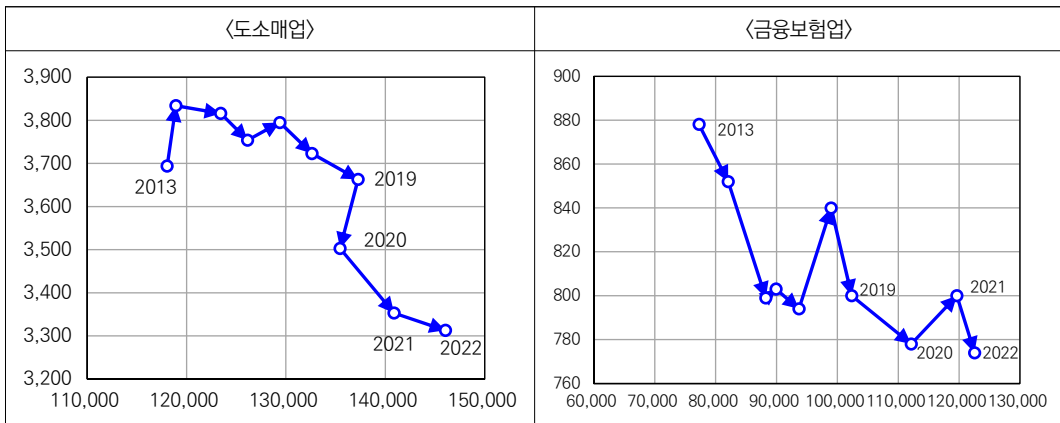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 각 연도.

○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은 생산과 고용이 부(-)의 관계를 가지는 업종임(그림 4 참조).

- 도소매업(왼쪽)은 2014~2019년까지는 생산은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이 서서히 진행됨.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어 2020년 코로나19로 생산과 더불어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회복기인 2021년에는 생산은 감소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은 큰 폭의 감소가 지속되었으며 2022년까지 그 추이가 이어졌음.
- 금융보험업(오른쪽)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종으로, 생산과 고용의 추세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용은 2014~2015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됨.

[그림 4] 업종별 국내총생산 및 취업자 수 산점도 : 도소매업 및 금융보험업

(단위 : 십억 원(가로축), 천 명(세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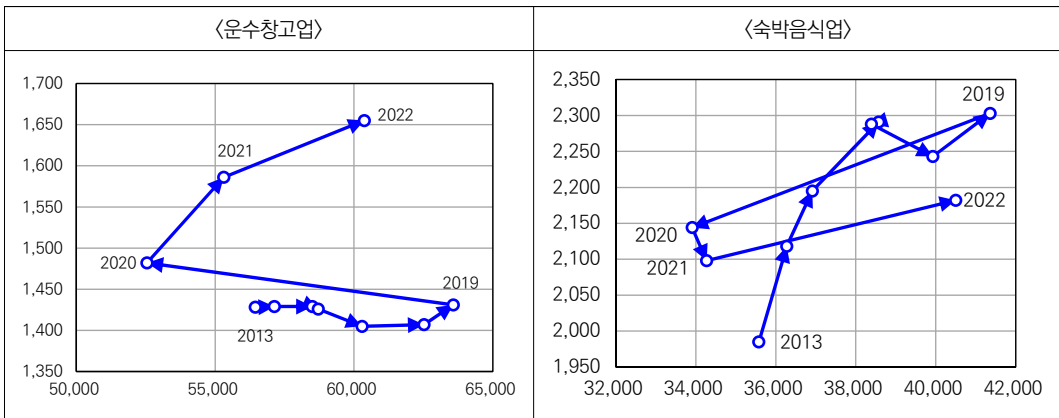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 각 연도.

- [그림 5]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업종인 운수창고업과 숙박음식업을 살펴봄.
 - 운수창고업(왼쪽)의 경우 2013~2019년까지는 생산은 성장하고 고용은 정체된 추세였음.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은 국내외 이동량이 감소하여 총생산은 감소했지만 택배 및 배달 수요가 늘어나며 고용은 오히려 증가함. 2021~2022년을 거치며 생산은 점차 회복되고 고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짐.
 - 숙박음식업(오른쪽)의 경우 2013~2016년은 생산에 비해 고용이 급속히 확대되던 시기였음. 이후 2019년까지는 생산은 증가를 지속했지만 고용은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됨. 2020년은 코로나19로 생산이 2013년 이전 수준까지 감소함. 고용 역시 크게 감소했지만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함. 숙박음식업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어 2021년에도 고용은 감소했으며, 생산이 2019년에 근접하게 회복된 2022년에도 고용은 2020년 수준에 머무름.

[그림 5] 업종별 국내총생산 및 취업자 수 산점도: 운수창고업 및 숙박음식업

(단위: 십억 원(가로축), 천 명(세로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 각 연도

- 생산과 고용의 관계 및 추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
 - 생산과 고용이 반드시 정(+)의 관계만을 가지는 것은 아님. 업종과 시기에 따라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은 감소(도소매업 등)하는 경우나, 생산은 감소하지만 고용은 증가하는 (건설업 등) 경우도 있음. 따라서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고에서는 업종을 대분류로 구분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의 총생산과 고용 간의 관계는 대분류 수준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KLI**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